월요논단

정 구 철
제주국제대학교 명예교수

올림픽 개최국 일본은 정치적 악용보다 국익 고민해야…

올림픽 경기 개최에 맞춰 참가국 정상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정치와 경제 기타 세계적 이슈들을 논하는 장 밖 올림픽 경기가 열려왔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는 정치적이며 바람직하다. 지난해 개최됐어야 할 제32회 2020 올림픽이 코로나19로 1년 후인 오는 7월 24일부터 개최예정이다. 코로나19의 기세가 여전해 올림픽 관광객들과 선수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어도 IOC와 일본 정부는 엄청난 재정적 손실과 올림픽 낙수효과도 포기하며 무관중 대회일지라도 강행할듯하다.

일본은 올림픽개최를 통해 장기적으로 침체된 일본경제를 되살리고, 잔뜩 위축된 자국 젊은이들의 기를 살리며, 아시아 최강국 지위 복귀를 기대했었으나 예기치 못했던 전 지구적 환난으로 유치 목표는 고사하고 김빠진 대회라도 감수해야 할 처지가 됐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정치적 이용을 금지하는 올림픽 강령을 무시하고 주변국들을 자극하고 있다.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하고, 일제의 악행에 대한 기억이 선명한데 욱일기를 이용한 응원, 전 세계의 환경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결정을 하며 올림픽 경기 자체는 진창이 되더라도 주변국 특히 한국과는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IOC 역시 어떤 속사정인지 모르나 일본 정부의 정치적 이용을 방관하는 모양새다. 올림픽 정신의 기본 원리 6조에 올림픽 운동의 목표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 우정, 연대, 페어 플레이 정신 속에서 어떤 종류의 차별이나 정치적 목적없이 스포츠를 통해 평화롭고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개최국은 당연히 올림픽 정신에 입각해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해 쾌적하고 안전한 축제의 장을 제공해 기량을 발휘하고 소통하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 세계에서 방문하게 될 선수, 임원, 방송기자, 관광객들의 안전한 출입국과 방역에 역점을 둬 국내외적인 올림픽 분위기 조성과 관광객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올림픽 정신을 준수하고 잔뜩 위축된 세계인들에게 코로나 극복에 대한 희망을 주는 모범적인 대회를 목표할 때 국익도 배가될 것이다. 일본 정부의 도발적 행위에 분개하며 올림픽 불참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대표선수들이 경기에 참여하며 국위를 선양함은 선수들 몫인데 정치적 이유로 기회를 뺏음은 결코 안 된다. 정치문제는 정치인들이 풀어야 한다.

몇가지 방안을 제안하면, 첫째, 유사한 국경문제를 안고 있는 주변국들과 연대하고, 둘째, 가난한 나라의 선수들에게 백신 지원과 교통편이 제공, 셋째, 선수촌 내 소통의 광장에 K-POP ZONE, 친환경 K-식품과 독도가 표기된 한반도 캐릭터 제공과 같은 방안, 넷째, IOC 선수위원들을 설득해 연대할 수도 있다. 또 다른 방안은 이미 상당 수준으로 IOC를 후원하는 우리 기업들이 측면에서 IOC를 압박하면 의외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일본은 올림픽 운동에 흠으로 남을 정치적 행위로 고립을 자초말고 개최국으로서 모든 방문객들의 안전과 선수들의 최고기량 발휘를 지원하고 또 하나의 복병일 수 있는 일본 특유의 자연재해인 화산과 지진 그리고 태풍에도 만전을 기해서 최악의 상황을 잘 극복해낸 모범적인 올림픽이 되길 기원한다.

열린마당

1초와의 사투

임 찬 식
제주소방서 연동119센터

모든 영웅의 이야기에는 조력자가 등장한다. 소방관들이 화재 초기에 도착해 화재 진압을 하거나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심정지 환자를 살려 영웅의 이미지로 비치곤 한다.

이 영웅들 주위에도 또한 조력자가 있다. 소방차가 지나갈 때 길을 터준 시민이 그 조력자이다.

갈수록 교통량이 증가하고 불법주·정차 차량이 늘어나면서 소방차 현장 도착 시간은 갈수록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길 터주기가 필요하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다음과 같다. 소방차량 접근 시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해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고,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거나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는 좌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할 수 있다.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소방차량은 2차로로 진행하며, 일반차량은 1차로 및 3차로로 양보 운전을 해야 한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춘다.

뉴스에서 소방차에게 길 터주는 장면이 나오면 우리는 흔히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화가 됐으면 하는 기대를 한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시민 의식의 변화다.

도로에서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을 보게 된다면 이것은 위험에 처한 누군가를 도와주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출동하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우리 모두 각자의 1초를 양보해 1초와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들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돼보자.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원 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보다 낫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 간담회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같은당 제주 국회의원 3명의 지지를 얻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고 언급.

이광재 의원은 20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도내 국회의원 중 이 의원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의원이 없다"는 질의에 "대선 채비가 늦어 아직 자신을 지지하는 제주 국회의원들이 없는 것 같다. 지지를 얻기 위해 공을 들이겠다"고 답변.

한편 원희룡 제주지사를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국가 경영에 있어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보다 낫다고 생각한다"고 대답. 이상민기자

상하수도 공무원 자원봉사

○…어려운 이웃의 소규모 상하수도 교체 및 수리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무원들이 무료로 자원봉사에 나서 눈길.

제주시 상하수도과 직원들은 관내 저소득 가구 등을 대상으로 급수시설을 점검하고 오래된 수도꼭지 등을 새것으로 교체 등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전개.

한 관계자는 "정기적인 자원봉사를 통해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소규모 상하수도 시설물 사전점검으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이윤형기자

'학생 1인당 비용 1400만원'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전문위원실이 작성한 지난해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검토보고서 서비스성과지표 분석을 보면 1년간 투입된 인적·물적 자원의 사용액인 학생 1인당 비용은 1400만원으로 2018년 1200만원보다 증가.

이와관련 오대익 교육의원은 지난 18일 결산 심사과정에서 학생에게 지출되는 돈이 많으면 교육효과로 나타나야하는데 정서위기, 비만, 각종 중독률이 줄지 않음을 지적.

오 의원은 "지표가 좋으면 결과가 학생들의 행동에도 좋은 변화가 일어나야한다"고 일침. 오은지기자

사설

도민 백신 우선접종 무산돼 안타깝다

제주도민의 코로나19 예방 백신 우선 접종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제주도가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도민의 백신 우선 접종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무산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백신 접종 3분기 시행계획에 제주도민 우선 접종 방안은 포함되지 않아서 그렇다.

질병관리청은 엊그제 3분기 백신 접종계획을 발표하면서 특정 지역 주민 대상 우선 접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제주도민의 백신 우선 접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유관기관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화답하면서 기대를 했으나 제주도의 요구가 반영안돼 아쉽다.

제주도는 정부의 백신 3분기 시행계획에 따라 9월 말까지 총 40만2580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7월 우선 접종 대상자들은 6월 미접종자, 대입 수험생과 교육·보육 종사자, 50대 장년층으로 나뉜다. 8월부터는 접종을 희망하는 50대 이하(18~49세) 연령층에 대해 사전 예약순서에 따라 접종한다. 제주도는 예방접종센터내 의료 인력도 추가 충원할 예정이다.

제주도가 도민의 백신 우선 접종을 정부에 건의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도민의 선제적 예방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을 앞당기고 제주에 온 관광객들이 안심하게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불안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도 관광객이 하루 3만명 이상 방문하고 있잖은가. 특히 여름 관광 성수기인 7~8월에는 2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의 경우 관광객을 통한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원희룡 지사가 언급했듯이 제주도만 특혜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손님이 오가는 관광지라는 특성을 감안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거듭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빚투성이 자영업자 '눈물' 멈추게 해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여전히 '눈물'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가게 매출은 '직격탄'을 맞았고,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즐비한데다 그 상황의 연속이다. 자영업자들은 백신접종을 계기로 일상 회복의 '그 날'만을 기대하지만 현실선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든다며 아우성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은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행렬'에서 여실하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저리융자에 몰리고, 상환일 도래에도 갚을 수 없다는 빗발치는 민원으로 기간 연장을 할 정도다. 추가 지원을 원하는 사람도 줄을 서는 판이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집계 결과 작년 2~6월 소상공인 특별보증 융자지원이 7196건 1654억원에 달했고, 올해 상환일 도래에도 상환이 어렵다는 민원들로 '봇물'을 이뤘다. 끝내 1년 연장 조치도 취해졌다. 최근 개시된 300억원 규모 특례보증도 14~15일 이틀간 65건 16억9400만원 융자지원됐고, 계속 몰릴 태세다. 작년 융자받은 후 상환은 커녕 추가로 지원받아 버티려는 상인들이 많다는 얘기다.

'실상'은 신용재단 연간 보증규모서도 알 수 있다. 작년 재단의 일반·특별보증은 2만1091건 5148억원에 달해 2019년 1만1245건·2800억, 2018년 9901건·2440억에 비해 두배 이상 많다.

지역사회가 자영업자들의 '고통'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 매출부진을 넘어 휴·폐업, 거기다 신용불량자로까지 거칠게 내몰리는 현실이다. 행정이 재난지원금 지급, 지역화폐 발행에서 더 나아가 지역상권을 살릴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현 위기상황에 맞게 민관협의체 구성과 함께 현장간담이나 세부 지원책 등 시기에 맞는 활성화 대책을 꾸준히 모색해야 한다. 지역경제의 큰 축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몰락'을 이대로 둘 순 없다.

부 고

姜영호(前 공무원), 姜영돈(前 제주도 관광국장) 어머니 **남양洪씨 기화(향년 93세)**께서 서기 2021년 6월 19일 05시 04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6월 21일(월요일)
▶발인일시: 2021년 6월 22일(화요일) 오전 6시 30분
▶발인장소: 하귀농협장례식장 제2분향실
▶장 지: 한림읍 명월 방주오름 문중묘역

아들 강영호 며느리 강혜선
(故)강영찬 박서진
강영돈 송미애
딸 강영희 사위 이광흡
강영실 조철규

※ 연락처
강영호 010-9920-3839 강혜선 010-3694-4109
강영돈 010-6899-6697 송미애 010-3009-6697
강영희 010-6772-5519 이광흡 010-3045-6099
강영실 010-9330-7871 박서진 010-9007-0895

부 고

강창봉(前 공무원) 어머니 · **오중홍(前 서귀포시교육장)** 장모 **청주한씨 농옥(향년 94세)**께서 서기 2021년 6월 19일 05시 20분경에 숙환으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6월 21일(월요일)
▶발인일시: 2021년 6월 22일(화요일) 오전 6시 30분
▶발인장소: 서귀포의료원장례식장 제2분향실
▶장 지: 남원읍 위미리 가족공동묘지

아들 강창봉 며느리 박영심
딸 강영심 사위 오중홍
선희 문용배
봉심
선녀 정병훈
손자 강태일 손부 허나름

연락처 :
강창봉 010-3692-6115 오중홍 010-4690-2196
문용배 010-6440-1451 정병훈 010-4977-2607
강영심 010-2689-2196 강봉심 010-5196-2825
박영심 010-3421-6115 강태일 010-9898-6115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김해김씨 완순(향년 91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6월 21일

아들 윤문유 며느리 우연배
영유 양길순
상유 진승희
성유
딸 윤영례 사위 고은식
영옥 강지훈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제주고씨 춘숙(향년 91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6월 21일

아들 강성호 며느리 오정일
일호
딸 강을생 사위 구석재
미생
미자 김희현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인동장공 영태(향년 70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6월 21일

아들 장창훈
딸 장혜경
사위 부문태

토지 급매 가격

1) 서귀포 범섬 최고 전망【특A+++】
건축허가 완료, 10필지 중 토지 150~220평 단, 8개 남음 ★평당 220만원★
2) 강정동 해안도로 200m 근접
바다 조망, 한라산 조망 최고 건축가능, 아울렛예정지구 부근, 12m계획도로 진행중, 총 480평 ★평당130만원★
3) 호근동 별장부지
범섬 조망 최고, 서호초 2분, 하나로마트 3분거리 총 681평 ★150만원★
4) 강정동 해안도로
바다조망 한라산조망 최고, 호텔 및 고급 빌라 부지용, 총 2486평 ★190만원★
5) 월평동 해안도로 초근접
바다조망, 한라산 조망 최고, 카페부지 특 A+++ 총 1635평 ★85만원★
6) 강정동 해안도로위 땅
15m 건축 가능, 바다조망 카페용 펜션용, 총 376평 ★240만원★
7) 월평동
바다조망 한라산조망 건축허가 150평, 180평, 380평, ★160만원★

010-6767-4546, 010-6275-5200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